



제 176 호

평화의 도구

2008년 4월

영적보조자 : 이규성 바오로 sfo 714-537-1974
 회 장 : 이세홍 바오로 sfo 562-860-6930
 부회장 : 음광인 아오스딩 sfo 562-902-1585
 서 기 : 김창순 데레사 sfo 714-447-0504
 회 계 : 홍병숙 율리안나 sfo 714-522-0675
 양 성 : 김영배 요한 sfo 714-447-8890
 일반평의회원 : 김재련 안젤라 sfo 562-694-1919

◆ 월례회 : 매월 3째 일요일 오후 12시30분 성 토마스 성당 412 N. Crescent Way, Anaheim, CA 92801 ◆

형제회 소식

▶가톨릭 워커 봉사 개시

내부공사 관계로 그동안 쉬어왔던 산타아나 무숙자 봉사를 5월4일(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이 날은 불고기 서비스가 있으며 봉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고 오전 8시까지 도착해 주십시오.

주소: 316 Cypress Ave, Santa Ana

*자세한 문의 : 평의회원

▶ 형제회 총회및

6대 평의회원 선거

지난 3월16일(일) 오렌지카운티 형제회 정기총회및 제 6대 평의회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3년간 봉사를 해주실 새 평의회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회장: 이세홍 바오로

부회장: 음광인 아오스딩

양성: 김영배 요한

서기: 김창순 데레사

회계: 홍병숙 율리안나

일반평의회원: 김재련 안젤라

▶ 제8차 북남미 봉사자 연수회

일시: 2008년7월31일(목)-8월3일(일)

장소: Serra Retreat Center

3041 Serra Rd., Malibu, CA 90265

주관: LA형제회

경비: 일인당 \$280.00

신청접수: 평의회원

**신청 마감은 4월20일입니다.

▶ 형제회15년사 출판 기념식 및 설립 15주년 기념미사

오늘 4월 20일(일) 오렌지 카운티 형제회 설립15주년을 맞이하여 성토마스 성당에서 기념미사및 형제회 15년사 출판 기념식을 거행하며 15년사 책자를 배부합니다.

12:30-1:30 점심 식사, 리셉션

1:40-2:45 15년사 출판 기념식

3:00-4:00 설립15주년 기념미사
(주일미사로 봉헌)

▶ 각자의 컵은 각자 준비하기

수고하셨습니다 !!

4월 식사준비

제10구역

유근숙 율리아	정치영 요한보스코
송정숙 데레사	배종두 미카엘
배연동 안나	박영재 요왕
김용원 데레사	

▶ 5월은 제 5구역



HAPPY BIRTHDAY!

생일을 축하합니다

4월3일	홍순철 안셀모
4월4일	장정지 요안나
4월7일	이규성 바오로
4월8일	배기옥 세실리아
4월11일	김상숙 아가다
4월11일	김용원 데레사
4월14일	권연경 마리아
4월17일	박계옥 안나
4월20일	박용원 아고보

신, 구 평의회 인수 인계 모임



지난 3월28일(금) 저녁 8시, 성 토마스 성당 교실 8호실에서 오렌지카운티 형제회 신, 구 평의회 인수 인계가 있었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소임에 따라 기록및 임무에 관하여 인수, 인계 하였으며 아울러 새로 탄생한 평의회가 형제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였고,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형제회의 규모가 큰 만큼 형제회를 잘 이끌어 나가기란 쉽지 않기에 형제 자매님, 한분 한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프란치스코 성소로서 불리움 받은 우리들의 소명인 '복음에서 삶으로,

삶에서 복음으로'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 가는 귀한 형제회가 되도록 새 평의회와 함께 힘차게 전진합시다.



‘듣음’의 (Listen) 은총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에 우리 가족에게 있었던 일이다. 소담스러운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놓여 있는 각자의 선물을 풀어 보며 즐기고 있었다. 형들의 선물, 엄마 아빠의 것들을 열어 보던 막내가 벽난로 옆에 걸어 놓은 스타킹 안을 확인하는 것이 보였다. 눈여겨 보니 그 안에 하얀 봉투가 들어 있었다.

그러고 보니 이번 해에는 ‘산타 클로스’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미치게 되었다. 우리 부부는 두 큰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선물은 별도로 아이들 모르게 ‘산타 선물’을 따로 마련해 벽난로 앞에 놓아 주곤 했었다. 아이들이 산타를 위한 쿠키와 우유를 마련해 놓곤 하였기때문에 기쁨을 한번 더 주고 싶은 마음에 시도했던 번거로운(?) 행사였다. 이미 커 버린 두 아이들도 돌이켜 보면 너무 귀중한 추억으로 이야기하곤 한다.

그런데 쫓기는 연말 스케줄에 아이도 우유와 쿠키를 준비해 놓지 않았기에 무심히 있었던 차다. 스타킹 안의 편지를 슬쩍 읽어 본 가족들은 비상에 걸렸다. ‘내가 원하는 선물은 xx이고, 이번에는 쿠키와 밀크를 준비해 놓지 못해 미안하다’는 내용이었다. 시간은 없고,,,,,

“산타 할아버지께서 너무 바쁘셔서 조금 늦게 오시나보다.” 라고 안심을 시킨 후 우리 가족은 바빴다. 다음 날, 벽난로 앞엔 막내가 원하는 산타 선물인 Nintendo DS Lite 게임기가 놓여 있었다.

부모된 입장에서 나는 ‘내 아이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있는가’고 가끔 생각해 본다. 나와 나의 사랑하는 아이들과의 긴밀하고 사랑스러운 관계를 맺으려고 어떠한 노력을 하는가. 주의 깊게 듣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말함으로 나를 표현하는 일을 더 좋아한다. 우리는 하느님을 상대로도 이렇게 대화를 빙자한 나의 독백만을 한다.

연구 결과에서도 주로 질문하며 듣기만 했는데도 상대방이 느끼기는 말을 잘 하는 사람, 혹은 인간 관계를 잘 하는 사람으로 평가한다고 한다. 어려운 일이나 원하는 것이 있을 때면 기도를 한다. 주로 말씀 드리는 것에 주력을 한다. 가까운 인간 관계에서도 서로를 존중하면서, 한 사람이 말하는 동안 다른 한 사람은 귀 기울여 듣는다.

그러다 어떤 시점에 듣고 있던 사람이 말을 하고 한 쪽은 귀 기울여 상대의 말을 듣는다. 그렇지 않으면 깊고 성숙한 인간 관계가 이루어지기 힘들다. 기도도 그런것 같다. 하느님과 긴밀하고 가까운 관계를 갖고자 한다면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나의 말을 하는 것 그 너머에…… 그 분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세지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잘 듣기를 바라셨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 것’에 대해 피력하셨다. 그러나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은 귀 기울여 그 분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 하느님께 귀 기울이는 것은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그 분께 열어 놓는 것이다.

존 디어 신부님은 그의 저서에서 ‘귀 기울임’이란 하느님의 현존 앞에 우리 영혼을 벌거 벗겨 내 놓는 것을 뜻하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그 분이 바라시는 대로 말씀하시게끔 해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진정으로 겸손하게 그 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이고 싶다. 어느날, 우러나서 나의 여러 문제를 고하면서, 원하는 방향설정도 내가 하고, 그 분은 그 뜻에 따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나의 교만하기 짝이 없었던 기도 방식이었다. ‘듣음의 은총’이 나에게, 내 가슴에 긴밀하고 절절한 사랑으로 임하시길 원한다면 그 분의 음성 받을 수 있는 겸손한 귀 기울임의 시간이 필요하리라.

그리함으로 하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께서 “내 사랑하는 딸아! 혼돈 속에 헤메이지 마라. 나는 진정 너를 사랑한다” 라는 부드러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

아멘!!

윤상우 아그리케나 SFO



성 프란치스코 영성



**영혼은 겸손하고 단순한 형제들의
기도와 눈물에 의해서 변화되는데
다만 다른 사람들의
학식과 강론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처럼 보일 뿐...**

가장 거룩한 사부께서는 자기 형제들이 학문과 책을 갈망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성스러운 겸손으로 삶을 쌓을 것과 참 단순을 익히고 기도하며, “가난부인”을 사랑하도록 그들을 가르쳤는데 성인들과 초대 형제들이 그렇게 하여 자기를 완성해 갔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것이 그들 자신의 구원과 다른 사람들을 교화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항상 말하였다. 왜냐하면 우리를 불러 주시고 당신을 따르도록 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길을 당신의 가르침과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여 주셨으며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었다. 사부께서는 미래를 내다보며 성령을 통하여 미래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남을 교화시킨다는 기대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성소를 버리곤 하는데 성소는 거룩한 겸손과 참다운 단순, 기도와 헌신 그리고 가난부인의 사랑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말하였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더 많은 천부의 재능을 타고 났으며 헌신하는 마음으로 가득차 있고 사랑으로 불타고 있으며 성서연구를 통하여 신성한 지식으로 남을 교화시키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들 자신에게 내적으로 싸늘한 공허를 남기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최초의 성소로 돌아올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 쓸모가 없고 오도된 학식으로 이 성소를 따라야 할 때 시간만 낭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들이 지니고 있는 영광마저도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빼앗기게 될까 두렵습니다. 그 영광이란 그들의 성소를 지키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또 말했다. “자신의 거룩한 성소는 소홀히 하고 또 영육간에 겸손과 기도 생활과는 떨어진 생활을 하면서도 지식을 추구하는 데는 온 정력과 열성을 다하는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강론하여 몇몇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다거나 혹은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면 다른 사람들의 이러한 은총을 마치 자기들이 준 것처럼 생각하고 기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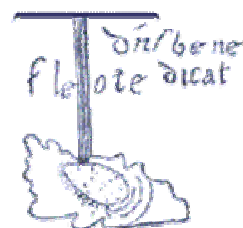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자기 자신의 비난과 고통에 대하여 강론하게 된 셈이었고, 하느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되었는데 그들은 바로 그 사람들의 도구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셈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학식과 강론을 통하여 사람들을 교화하고 회심시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거룩하고 가난하고 겸손한 형제들의 기도와 눈물을 통하여 하느님께 의해서 교화되고 회심되는 것입니다. 이 성스러운 사람들이야 그것을 알 리 없지만 말입니다. 그들이 교만해질까 하여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한 것은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형제들은 나의 원탁 기사들이며 자기들의 죄와 다른 사람들의 죄를 통회하고 순박하게 살아가며 겸손하게 처신하면서 보다 철저하게 기도와 관상을 하기 위하여 사막과 한적한 곳에 숨어살고 있습니다. 이들의 고결함은 하느님도 알고 계시며 때때로 다른 형제들에게도 알려지고 있으나 세상에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천사들이 하느님 앞에다 그들의 영혼을 바칠 때 하느님께서 그들 이 맺은 결실과 노력의 보상, 즉 그들의 기도와 눈물에 의해서 구원된 많은 영혼들을 그들에게 보여 주실 것입니다. (중략)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구원의 길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리켜 주는 일 말고는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고 자기는 그 길을 따르려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벌거숭이로 그리고 빈손으로 서게 된 것이며 혼돈과 수치와 비애를 묶은 다발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성소인 성스런 겸손과 단순, 성스런 기도와 가난에 대한 진실성은 찬양 받게 될 것이며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 선포될 것입니다. (중략)

“아이를 못 낳던 여자는 일곱 남매를 낳고 아들 낳던 어미는 기가 꺾이리라. (I 사무 2,5)” 라는 구절에 대해서 성 프란치스코는 말하기를 “메마른 자-아이 못 낳는 여자-라 함은 착하고 단순하며 겸소하고 가난하고 멸시 받는 수도자를 의미하며 그들은 언제나 자기의 성스런 기도와 덕성으로 남을 교화하고 슬픈 신음소리를 내며 훗날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했다. 그는 봉사자들과 다른 형제들에게 그렇게 말하였는데 총회에서는 특히 강조하여 말하였다.

—[완덕의 거울] 중에서—



완전한 기쁨으로서의 행복

우리가 영적 지도자로서 프란치스코를 선택한다면 성미에 맞지 않을 때라도 그가 말하는 것을 진지하게 따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G.K 체스터튼은 프란치스코를 따르는 사람들이 자주 프란치스코의 삶에서 자신들의 마음을 뒤흔들거나 불쾌한 면들은 무시하는 반면에, 자신의 마음에 드는 면에 마음을 고정시킨 채 그를 공경하고 있다고 지혜로운 글을 썼다. 이러한 태도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프란치스코를 그대로 받아들이어야 한다. 우리 입맛에 맞지 않는 것을 씹 제거해 버린다면 우리에게는 그냥 예쁜, 위협적이지 않는, 정원용 조각상만 남게 될 것이다. 정원의 조각은 형편없는 영적 지도자가 될 것이다.

실제 프란치스코가 지닌 특징들 가운데 우리를 매우 당황스럽게 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그의 가르침이 지도한(지향한) 한 가지 특징은 그리스도께 대한 타협하지 않는 헌신이다. 솔직해 보자.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은 C.S. 루이스가 '소다수를 탄 위스키'라고 부르기 좋아했던 이들이다. 우리는 물을 탄 크리스천 정신을 선호한다. 물을 타지 않고 마시면 약한 우리의 위에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 다른 빵을 대주는 것, 공동선을 위하여 재산을 내 놓는 것, 자발적인 가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 등 우리의 생활 양식에 철저한 변화를 일으키도록 초대하는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밀쳐낸다.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을 모두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의도하셨던 것보다 훨씬 약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프란치스코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그는 너무 정직한 나머지 성경을 선택하여 읽을 줄 몰랐고, 너무 단순한 나머지 성경을 위험부담이 없는 해석으로 교묘하게 돌릴 줄도 몰랐다. 대신에 그는 그리스도께서 사랑과 가난과 희생을 이야기하실 때 그 의미는 말 그대로 라는 철저한 생각을 지지하였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말과 그 의미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시는 이상한 버릇이 있는 분이 되어 버린다.

그래서 프란치스코의 영적 여정은 평생토록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되돌리는 것이 되었다. 사도 바오로가 말했듯이 프란치스코도 자신의 옛 자아, 즉 프란치스코 중심의 자아를 벗어 던지는 동시에 그리스도를 '입고' 싶어 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았던 세 가지 덕인 가난, 단순, 겸손을 설교했고 실천했던 것이다.

프란치스코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가난부인과 결혼할 때 폭력을 낳는 재산의 노예상태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또한 거룩한 단순을 꺼안을 때 하느님에게서 자신들을 멀어지게 했던 내적인 허영과 야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공손한 겸손을 꺼안을 때 자신들의 영혼이 우주의 창조주께 완전히 의존함을 감사로이 깨닫게 된다고.

좀 더 넓게 보면 가난과 단순과 겸손은 사랑의 가장 큰 장애인 두려움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사랑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하느님의 피조물에 대한 사랑과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될 때, 우리는 창조된 그 목적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완전히 그리고 풍요롭게 사는 것이다.

가난은 종종 유쾌하지 못하다. 그 누구도 배고프거나, 목마르거나, 곳은 날씨를 피할 곳이 없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단순과 겸손은 자주 고통을 느끼게 한다. 복음을 사는 것보다 신학을 읽는 것이, 다른 빵을 내미는 것보다 되받아 치는 것이 훨씬 쉽다. 그러나 이러한 불쾌한 것들은 그저 일시적인 반응일 뿐,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하는 모상이 되려고 잠재력을 실현시켜 나갈 때 찾아오는 깊은 상태의 행복이나 완전한 기쁨을 뒤엎을 수는 없다.

—완전한 기쁨을 찾아서—

볼로냐의 성녀 가타리나 동정 (1413-1463)

기념일: 5월 9일



법률가이자 외교관의 딸인 그녀의 어릴적 이름은 카테리네 데 비그리 인데, 그녀는 데스테의 니콜라스 3세의 궁중 시녀로 일하였으며, 여기서 훌륭한 교육을 받았다. 부친이 사망하자 그녀는 궁중을 떠났으며, 준 수도생활을 하려는 일단의 부인들과 함께 페라의 프란치스코 3회에 가입하여 참으로 열심히 살았다. 그들은 후일 모두가 글라라회원이 되었다.

1456년, 그녀는 볼로냐의 새 수도원의 원장으로 일하였다. 그녀는 서도와 회화에 특별한 재능을 보였으며, 뛰어난 성덕으로 인하여 그녀의 수도원은 곧 유명하게 되었고, 천상 은총이 충만하였다. 그녀가 손수 장정하고 장식한 성무일도서는 지금도 볼로냐 수도원에 보관되어 있다. 가타리나는 여러 책의 시와 산문을 남겼으나 간행되지는 않았다. 1712년에 시성되었으며, 미술가들의 수호성인이다.